



정기검진 필수... 백신접종 80% 예방가능

자궁경부암은 WHO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50만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며, 발생 빈도상 여성암중 유방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일 여성 12명이 진단받고 3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자궁경부암 사망자 수는 1991년부터 꾸준히 늘어 한 해 1000명을 훌쩍 넘는다.

최근 들어서서 젊은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생도 늘고 있으며 특히 35세



이민영 시열병원 산부인과 원장이 40대 여성에게 자궁경부세포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성암 발생 2위... 환자 99.7% 고위험 감염성 경험 있는 20세 이상, 1년간격 세포검사

미만 여성 환자의 비율은 8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자궁경부암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산부인과 방문을 꺼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기검진을 안 받으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성인병 암검진까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자궁경부암 환자 99.7%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와 연관=자궁경부암은 환경암이라 할 정도로 여러 외부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나 성접촉에 의한 사마귀 바이러스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이 고위험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큰이나 흔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데, HPV에 감염되면 자궁경부암 발생 위험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 자궁경부의 편평상피세포와 원주상피세포가 만나는 경계 부위에 원인균인 인유두종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란? = 현재까지 밝혀진 100여종의 HPV 중에서 40여종이 생식기관에서 발견되

는 등 경고 신호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때도 호르몬 불균형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여성들이 많다. 다행히 자궁경부암은 정기적인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이 쉬우며 백신접종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발암성 HPV에 감염된 후 암으로 진행될 때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기 발견하면 근치 혹은 완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약 80%를 예방할 수 있다.

◇백신 접종 및 관리=이전에는 HPV 백신 접종 연령은 9~26세로 성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알려졌다. 하지만 성경험이 있는 만 24~45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 자궁

경부암을 91%까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경험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방백신 접종과 정기검진을 했다 하더라도 자궁, 난소, 음부, 질 등의 정결 유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전한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산부인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성경험이 있거나 만 20세 이상 모든 여성은 1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단 성경험이 없으면 자궁경부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열병원 이민영 원장)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국립심혈관센터’ 조성 설립 위한 국회정책포럼

최근 심혈관 질환자 급증... 통합관리 절실 전남대·광주특구 등 인프라 풍부 ‘최적합’

우리나라 사망자의 4명 중 1명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심혈관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3배 증가했으며, 국민의료비도 연평균 15.6%가 오르는 등 국가의료비와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정적인 사회적 비용 관리라는 측면에서 심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립센터를 광주에 인접한 장소에 설립하기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열렸다.



전남대병원 이 1996년 국내 최초로 동물심도자실을 설립한 이래로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심근경색증 환자를 치료·연구하는 등 최고의 연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광주권의 첨단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조성은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적지라고 뒷받침했다.

심혈관질환 증가 추세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황으로서 대다수 선진국들이 국가 주도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오사카 국립순환기병센터, 독일 뮌헨 심장센터, 미국 워싱턴D.C 국립심폐혈관센터, 영국 국립심폐연구소 등이 좋은 사례다.

임 회장은 국립심혈관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연구센터·임상병원·예방 및 재활센터 등을 꼽은 뒤, 이 기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센터를 광주에 인접한 장소(나노기술산업단지)에 세워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심혈관센터 조성 설립의 이유로는 ▲의료자원의 수도권 과밀화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역량 집중-전남대 ‘한국급성심근경색증 환자 등록관리’, 광주연구개발특구 등 연구인프라 풍부, 광·바이오·의료 융복합 연구개발 추진 ▲호남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KTX 등 접근 용이, 지가 저렴 등 부지확보 용이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패널로 나선 정명호 전남대 의대(순환기내과) 교수는 “심혈관질환 환자가 최근 10년새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위원장 강정채) 주최, 국회의원 이낙연 의원 주관으로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임종윤 <사천> 대한심장학회장(한림대 의대 순환기내과)이 맡으며, 권준욱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박병근 제주대 교수·이건세 건국대 교수·정명호 전남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임종윤 대한심장학회장은 “심혈관질환 환자가 최근 10년새

13억 건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물량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IT기술을 활용해 일선 병의원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는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을 개발, 문서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됐으며 병의원들은 송수신 비용으로 지급하던 연간 180억원 이상을 절약하게 됐다.

강운구 심사평가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놓인 상황을 감안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

정명호 교수는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대한 병태생리, 기전, 역학, 진단법과 치료법, 이차 예방 및 재활요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국립심혈관센터를 통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방문 강운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진료비 부당청구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 기관들을 엄격하게 적발·처벌해 국민이 낸 보험료가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상반가 추진

사항 점검을 위해 최근 광주를 방문한 강운구(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지난해 전국 8만여 기관 가운데 1000여 개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해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부당 진료비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이 예산 절감 효과를 물론 업무 신속성과 병의원들의 비용 절감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병의원과 약국들이 kt-EDI 말을 이

용했던 기존의 진료비 청구방식을 심평원 자체 EDI망(electronic data interchange) 직접 청구방식으로 개설했다.

그동안은 병의원·약국들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심사청구할 경우, KT의 중계선을 이용했으나 연간

13억 건에 달하는 진료비 청구물량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IT기술을 활용해 일선 병의원이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는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을 개발, 문서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됐으며 병의원들은 송수신 비용으로 지급하던 연간 180억원 이상을 절약하게 됐다.

강운구 심사평가원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놓인 상황을 감안함과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

료의 질 향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진료 유발 항목 등을 선정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 원장은 영광 출신으로 광주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보 건복지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2010년 3월 취임 이후 심평원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포브스 최고 경영자 대상(정도경영부문)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병 이젠 한방(韓方)으로 다스린다

경희한의원

자연과 몸을 하나로 만드는 경희한의원

미국 정신과 협회는 96년 화병을 한국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일종의 문화중후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체면, 도리, 의무감을 중시하고 참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계속되는 스트레스, 억울한 감정, 억압적 환경, 자신의 이상과 맞지 않는 현실, 충격, 자식이나 배우자 외의 사별, 타인으로부터 서운한 감정, 사업의 실패, 억눌린 감정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제때에 신체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면 심장병, 중풍, 고혈압, 두통, 당뇨병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화병은 무서운 질병 중의 하나입니다.

화병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은 상체로 혈액이 몰려서 열이 많아지고 하체는 혈액공급량이 적어서 허약해지고 차가워지는 현상 즉, 상열하한(上熱下寒)입니다. 상체의 증상으로 울혈증상이 있습니다. 인체의 상체로 피가 몰리는 현상으로 상체의 혈관이 팽창되어 안면홍조,

눈의 충열, 심장이 두근거림, 고혈압, 숨이 차고, 귀 울림, 목 근육 경직, 두통,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오며, 머리에 열이 많아 땀이 많아집니다. 또한 상열증상으로 인해 얼굴 피부건조, 마른기침, 끈끈한 가래, 비염, 안구 건조감, 탈모, 시력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체에는 스트레스, 성질, 화를 낼 때마다 혈액과 영양분이 상체로 올라가니 하체는 자연히 혈액공급량이 적어져 대장, 방광, 자궁, 골반, 허리, 무릎 다리가 차가워지고 하체전반부에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하복부냉감, 대장(변비, 설사), 방광(요실금, 만성방광염), 자궁(생리통, 냉대하, 자궁암, 자궁근종), 골반(만성골반염, 요통, 디스크), 무릎관절염, 다리가 저리고 시린 증상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화병이 오래 지속되면 전신의 기운이 약해져 전신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의욕저하 만사피로가 되고, 음식물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고, 먹어도 항상 속이 허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결국 화병은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해소하는 것이 최상책이며 운동치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환자 각각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라고 정해 주기도 하지만 각자 여러가지 운동을 해보아서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리는 운동을 택하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고 나서 더 스트레스 받고 열을 더 받을때는 그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즐거운 생각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 것도 정신과 육체의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균형과 안정을 취해주는 한약 및 침을 사용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며, 신체열을 하강시키고 하체는 따뜻하게 하여 심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한의원) 전 선형 원장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침구과

진료 안내 ● 화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땀겨미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차장 안내 ※ 건물 옆 패밀리카센터

화정동 주택은행추선회관

← 송정리 → → 돌고개 →

중양병원